

사설

조계종 신도회 통합의 산고

조계종에는 두 개의 신도회 조직이 있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그것이다. 이 두 조직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로 통합을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그 이유는 조계종단 측에서 전국신도회의 법인격을 해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신도조직이 소속 종단의 종헌과 종법을 따르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조계종단측의 요구를 나무랄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국신도회측에서 내놓고 있는 "시민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현대시민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단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종헌 중범이 신도회의 자율성이나 역할과 위상을 제약해서도 곤란하다. 반면에 신도회 역시 사부대중의 일원이며, 2부종의 결속기구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따라서 무조건 종단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 역시 문제다.

마냥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 법인 정관에 '종단의 감사를 받겠다'는 조문을 단다면 어떨까 한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양측이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시대의 변화가 통합 신도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용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신도회의 자율성과 종법의 준수 양자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각별한 여름 수련회로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전국의 사찰들이 여름수련회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다. 여름 수련회들이 시작된 것이다.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이 일년 중 가장 기다리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름 휴가다. 헛바퀴 돌듯 하는 일상생활에서 모처럼 여유와 휴식을 갖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요즘 바캉스니 해외여행이니 하는 소비성 휴가 보다는 산사 수련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향락위주가 아니라, 산사의 자연속에서 자기자신과 주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수련회를 여는 사찰에서는 매년 하는 행사라고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내실있는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살펴 보완하고, 정신적 갈등을 채우는 특화 프로그램

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련회에 오는 불자들을 보면 경건이나 수행공부를 만만치 않게 한 사람들이 꽤 있다. 각계각층에서 참가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도법사는 수행이 깊은 중진급 스님들이 맡아야 하며,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수련회를 여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사급의 큰 사찰임에도 개최에 무관심한 곳도 있다.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포교를 해야 하는 판에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리의 씨앗'을 심는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수련회를 다녀온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름수련회, 주말수련회, 템플라이프 등이 늘어나 '잊지 못할 체험'을 나누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40세이후 발심출가자 구제 필요

특별법 제정·타당한 검증절차 등 제시

조계종, 출가연령 제한 공청회

40세 이상 출가자를 제한하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위위원회(위원장 영배)가 이같은 주제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내용 요약8면>

공청회에서는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승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출가 어디에도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연령제한은 교육적 편의를 위한 편견"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발제 및 논쟁자 중 정인스님(중

앙승가대 교수) 지오스님(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산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성무스님(용주사 교무국장)은 현행 40세 이하 출가연령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승가의 질적 향상 △승단의 위계질서 확립 △승가교육의 효율성 극대화 △사회 낙오자들의 도피성 출가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40세 이후 발심출가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오스님은 40세 이상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

회에서의 행적 등 엄격하고 타당성 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다.

지오스님은 또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 종단에서 발급하는 승적은 부여하지 않고 은사가 직접 수계를 주되, 소속은 은사가 속해 있는 사찰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인스님은 '40세 이상 출가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승석 교수(동국대)와 조연현 기자(한겨레신문)는 출가연령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출가 어디에도 출가연령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고령자를 구제하고 있는 마당에 나이를 제

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고령 출가자의 경우 정신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륜을 고려하여 비구나 비구니로 인정받기까지의 단계적 기간을 단축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연현 기자는 "출가연령제한 반대는 물론, 신체적 장애에 대한 출가 제한도 개선된 인권 의식에 맞춰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고령 출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도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고 판단, 지난해 9월 행자교육원 수확자격을 '1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법령을 개정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nia.com

무안백련축제 지원 약속

법장스님, 무안군수 접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0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서삼석 전남 무안군수의 예방을 받고, 오는 8월 14~17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무안백련대축제'에 불교계의 지원을 약속했다.

서삼석 무안군수는 이 자리에서 "연꽃축제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련 자생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무안연꽃문화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무안군이 7년째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축제 문화로 승화시켜준데 고맙다"며 "전남 지역 4개 교구본사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96년부터 매년 일몰읍 복옥리 회산 연꽃방죽에서 연꽃축제를 벌여왔으며, 올해는 '순백의 꽃망울, 화합의 대축제!'란 주제로 열린다. 김철우 기자

조계종, 5개 권역별 행자교육

출가연령 제한후 처음, 대구·경북부터

조계종 제25기 행자교육원(8월 14일~9월 5일)이 임교원서(13~20일) 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출가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하로 낮춰진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25기 행자교육원은 교육과정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 행자교육은 전국을 대구·경북(16~19일), 부산·경남(17~20일), 호남(7월 1일~7월 4일), 충청권(7월 22일~7월 25일), 직할·경기·강원(7월 29일~8월 1일)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1개 본사에서 3박4일간 실시하는 교육. 6개월에서 1년간의 개별 사찰 행자교육과 1개월의

본사 행자교육을 마친 행자교육원에 임교할 수 있었던 과정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

교육원 담당자는 "개별 사찰에서의 수행 생활을 점검하고 행자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습의와 기초교리 중심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원 10일 열린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는 제24기 행자교육원 탈락자 가운데 40세를 넘겼지만 절에 남아 계속 수행 중인 행자 9명에 대해서도 25기 행자교육원 임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권형진 기자

구족·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7월3~5일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신촌 불원사에서 구족제 및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구족제는 득도한 지 3년이 경과한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단 소속사찰의 교인과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재가불자, 포교사 등에

게는 전법사(포교사)계를 내린다. 혜조스님(전 총무원장)을 전계사로, 일우스님(원로회의 의장)을 감사로, 법장스님(중앙호법위원장)을 교수사로 열리며, 수진스님(담양 용화사) 인공스님(서울 불원사) 지허스님(순천 선암사) 등이 7중사로 참여한다.

태고종은 이번 수계산림을 통해 종도들의 종단관을 고양하고 승려들의 자질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박병영 기자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한진수씨 5일 임명

이창동 문화관광부장은 5일 종무실장(1급)에 한진수(54·사진) 전 감사관을 임명했다.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전북대를 졸업한 한 신임 종무실장은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시작으로, 20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도난문화재 회수 유공경찰관에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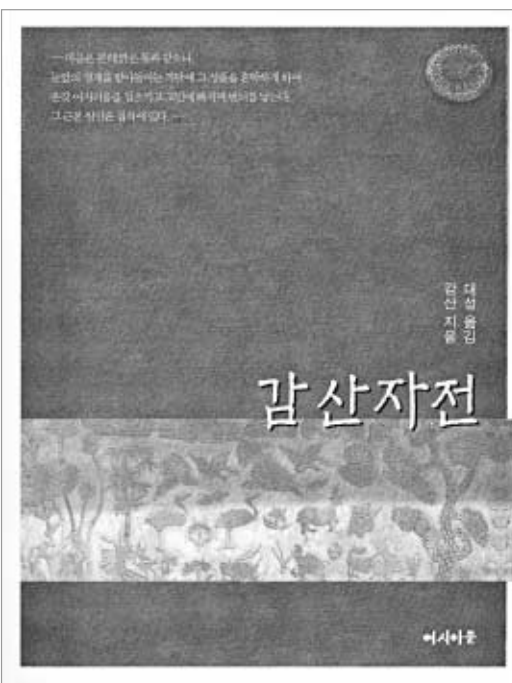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10일 국보 제247호 금동보살입상 용의자를 검거하고 문화재를 회수한 공주경찰서와 상송 사찰 문화재 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서울 지방경찰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형사 3개 4인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및 격려금을 각각 수여했다.

법장스님은 "불교문화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한명우 기자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1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주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 傳記라기보다는 년년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物)을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울긴이 **감산** (感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지육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蘆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울긴이 **대성** (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오자』와 『방편개시』(여시아문을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 서적들을 '아루나잘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